

요즘 KIA 왜 이리 잘하지? ... 신바람 7연승

지난주 롯데·KT에 스윕승
이창진·최원준 등 영건들 맹활약
안치홍·최형우·나지완 베테랑 부활
박찬호 어제 3안타 5타점...타격 6위



‘호랑이 군단’이 7연승으로 뜨거웠던 한 주를 마감했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즌 9차전에서 17-5 승리를 거뒀다.

지난 19일 양현종의 시즌 2승과 함께 시작됐던 KIA의 승리는 7경기까지 이어졌다. 부지런히 승리를 쌓았지만 승률에서 밀리며 KT의 8위 자리는 뺏지 못했다.

전날 양현종의 8이닝 4피안타 2볼넷 9탈삼진 1실점(비자책)의 호투와 장단 13안타의 화끈한 활약으로 10-3 승리를 거뒀던 KIA는 26일에도 뜨거운 기세를 이었다.

‘테이블 세터’로 호흡을 맞춘 최원준과 박찬호가 1회부터 부지런히 뛰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리드오프로 나선 최원준이 중전안타에 이어 도루로 상대를 흔들었고, 타석에 선 2번 타자 박찬호는 중전안타로 2루에 있던 최원준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박찬호는 2루를 홈친 뒤 안치홍의 우측 2루타 때 홈을 밟으면서 득점도 올렸다.

KIA는 최형우의 2루타까지 더해 1회 3점을 뽑았다. 2회에도 테이블세터가 공격을 이끌었다. 이창진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루에서 최원준과

박찬호의 연속 안타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5-0까지 벌어졌다.

‘한방’도 터졌다. 4회 이창진이 1사에서 좌측 담장을 넘겼고, 5회 1사 1루에서는 나지완이 중앙 담장을 넘기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확실한 득점 지원을 받은 윌랜드가 5회를 무실점으로 넘기며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6회초 윌랜드가 선두 타자 강백호에 이어 로하스를 연속 볼넷으로 내보냈다.

윌랜드는 유한준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황재균에게 좌전안타를 맞으면서 첫 실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어진 1사 1-2루에서 박경수의 땅볼을 직접 잡아 2루로 송구하면서 1-4-3의 병살타로 추가 실점 없이 등판을 마무리했다.

이후 8-1의 리드를 이어가던 KIA는 8회말 공격에서 무려 9점을 뽑아내는 폭발력을 과시했다.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안타를 때린 이창진이 타자 일순해 들어선 8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기록하는 등 KIA는 8개의 안타를 한 번에 몰아치면서 점수를 17-1까지 벌렸다.

9회초 마지막 투수로 나온 장지수가 4실점을 했지만 경기는 15-7, KIA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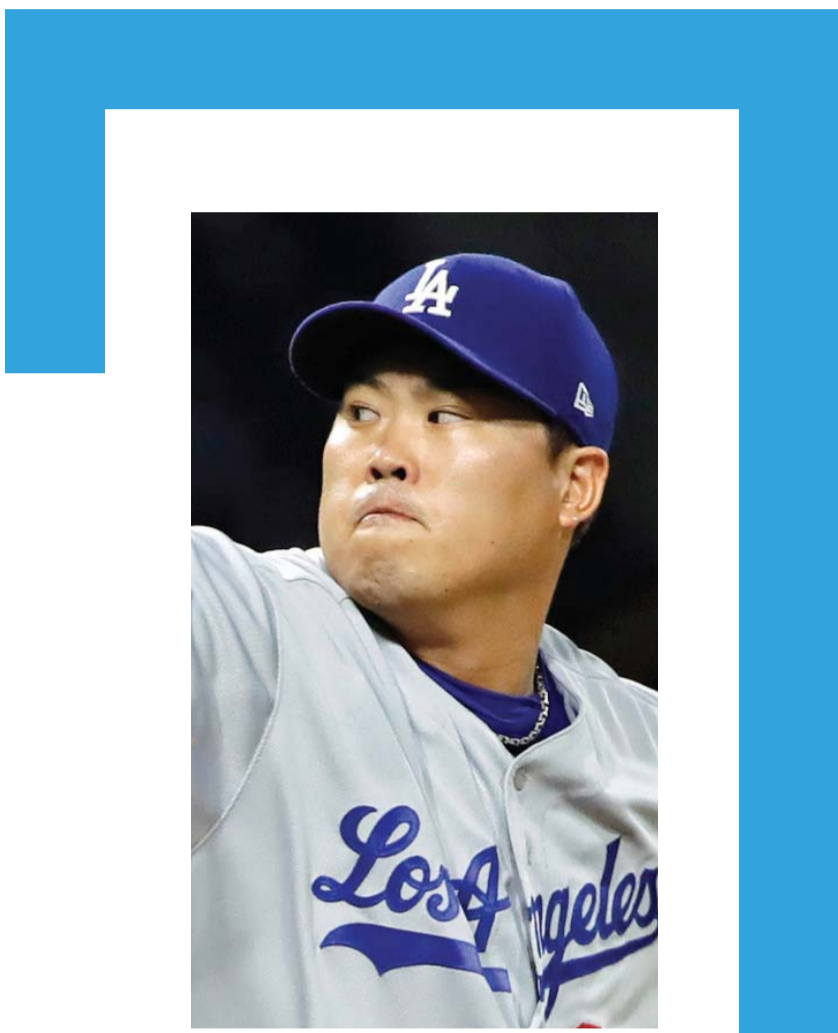
한편 3안타 5타점을 수확한 박찬호는 이날 경기를 통해 규정타석에 진입하면서 단숨에 타격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찬호는 “앞에 주자가 있으면 편하다. 앞에서 원준이가 잘 해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원준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며 “팀 타선이다 살아난 것 같다. 좋은 모습으로 팀 연승에 힘을 보태서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해적 잡는 괴물

류현진 피츠버그전 시즌 7승 '6전 전승'
6이닝 2실점...무실점 32이닝서 마감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8번째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달성하고 ‘흡연성 2루타’로 시즌 첫 타점도 올리며 7승(1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26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안타 10개를 맞았지만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뽐내며 2점으로 해적 타선을 틀어막았다.

류현진은 7-2로 앞선 7회 말 홀리오 우리아에게 마운드를 넘겼고, 경기가 그대로 끝나 5연승과 함께 시즌 7승째를 거뒀다.

피츠버그를 상대로는 통산 6번 선발 등판해 전승을 올리며 평균자책점 2.58의 성적으로 ‘해적 잡는 괴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류현진은 2회 2점을 줬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 2회부터 이어오던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을 ‘32’에서 중단했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인 안타 10개를 내줬지만, 류현진은 두 차례 병살타를 엮어내며 실점을 최소화했다.

볼넷을 허용하지 않은 류현진은 탈삼진 3개를 보태 탈삼진/볼넷 비율을 14.75에서 15.5로 높였다.

류현진은 2-2로 맞선 4회 초 2사 1루에선 우중간 펜스를 직접 맞는 비거리 117m짜리 2루타로 시즌 첫 타점을 올리고 6회에 정확히 보내기 번트로 추가 득점의 발판을 놓는 등 타석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첫 타자 조시 벨에게 중견수 쪽 2루타를 내준 류현진은 5번 타자 멜키 카브레라에게 포수 앞에 떨어지는 땅볼로 유도했다. 하지만 이를 잡은 포수 러셀 마틴이 3루에 악송구했고, 공이 외야로 흐른 사이 벨이 3루를 돌아 홈을 밟았다.

류현진의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이 ‘32’에서 끝난 순간이었다. 류현진의 이 기록은 박찬호의 33이닝 연속 무실점(공동 9위)에 이은 다저스 역대 투수 11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2019년 MLB 류현진 주요 기록

- 평균자책점 1.65 1위
- 삼진/볼넷 비율 15.5 1위
- 5월 다승 4승 내셔널리그 공동 1위
- 5월 평균자책점 0.71 1위

※ 26일(한국시간) 현재

시즌 10경기 중 7승(1패) 기록	날짜	상대팀	구장	피	삼진	피	할	투구	시즌 평균	결과		
				이닝	안타	(자책점)	홈런	볼넷	삼진	수	자책점	
	5월 26일	피츠버그	원정	6	10	2(2)	0	0	3	93	1.65	7:2

덕아웃 T 특특

▲생일 기념으로 = 막내 장지수에게 잊을 수 없는 생일이었다. ‘고졸 루키’인 장지수는 자신의 생일날이었던 지난 25일 KT전에서 10-1로 앞서 9회초 팀의 마지막 투수로 마운드에 섰다. 장지수가 등판하자 관중석 팬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막내의 생일을 축하해줬다. “갑동이였다”며 그 순간을 회상한 장지수. 하지만 감동만 남은 생일은 아니었다. 첫 타자 송민섭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스트라이크 아웃 상황에서 포수 실책이 나오면서 문살점의 출루를 허용했다. 그리고 심우준과의 승부에서 던진 114km짜리 커브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피홈런을 기록했다. 장지수는 “생일 기념으로 맞았다. 던지는 순간 다른 공을 던질 것 후회를 했었다”며 속스럽게

수훈 선수 박찬호 “연승 또 가볼까요?”

웃었다. 한편 장지수는 26일 등판에서는 1이닝 3피안타 2볼넷 4실점(3자책점)의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얼마나 놀리던지 = KIA 타자들이 20개의 안타를 쏟아낸 26일. 어떤 안타보다 의미가 있던 안타가 있었다. 8회 5번째 타석에서 유민상이 내야안타를 기록하자 KIA 덕아웃에서는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안타로 KIA는 올 시즌 17번째 통산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다. 올 시즌 팀 3번째 기록. 유민상은 “다들 안타 치는데 혼자 못치고 있어서 덕아웃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며 “내가 한 것으면 ‘선발 전원 안타’라는 기사 한 줄 될 나날 뻔했다”고 웃었다.

▲연승 가볼까요? = 약속을 지킨 강타자 박찬호다. 박찬호는 지난 2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뒤 수훈 선수로 선정돼 그라운드 인터뷰를 했었다. 이 자리에서 “7연승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박찬호는 26일 3안타 5타점의 활약으로 팀 7연승의 주인공이 됐다.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마련된 단상에 오른 박찬호는 관중석의 팬들을 향해 “연승 또 가볼까요?”라면서 10연승을 이야기했다. 박찬호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해서 7연승을 말했었다. 분위기가 좋다. 앞으로 10연승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침없는 질주를 약속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13연속 무패에도 1위 흔들

K리그2 아산 원정 0-0 무승부...부산 오늘 경기따라 순위 변동

광주FC가 13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성공했다. 1위 수성 여부는 27일 부산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광주는 26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산 무궁화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19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개막 후 시작된 광주의 무패행진은 이어졌지만 아산의 거센 견제에 막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1위 광주의 올 시즌 전적은 7승 6무(승점 27)가 됐다.

13라운드 1위 팀은 27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월요일 경기로 전남 드래곤즈와 13라운드 경기를 치르는 2위 부산이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광주와 승점이 같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이 30득점으로 광주(20득점)에 앞서있는 만큼 두 팀의 순위가 바뀌게 된다.

K리그에서는 승점이 같을 경우 다득점으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 시즌 첫 만남에서 광주에 0-4 대패를 당했던 안산은 거친 움직임으로 광주와 맞섰다.

경기 시작과 함께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면서 전반 1분 만에 광주 수비수 아솔마토프가 거친 수비로 경고 카드를 받았다.

5분 뒤에는 아산 김지운의 태클에 이요름이 넘어져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광주는 아산 수비진의 봉쇄에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전반전을 마감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요름의 왼발이 움직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으로 떠온 공이 뒤로 흘렀다. 김정환이 달려들어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맞았다.

후반 10분에는 이요름이 오른쪽에서 공을 올렸다. 결합 과정에서 공을 잡은 김정환이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정환

아쉽지만 자신감 얻었다

U-20 월드컵 포르투갈에 0-1 패
29일 남아공과 조별리그 2차전

설욕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승 후보에 대등하게 맞서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 20세 이하(U-20) 대표팀의 지난 25일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F 조 첫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선전을 펼쳤으나 0-1로 무릎을 꿇었다.

전반 7분 만에 상대 역습에 수비백이 매끄럽지 못하게 하면서 트란강(브라가)에게 선제골을 내줘 기운 승부를 끝내 되돌리지 못했다.

한국은 포르투갈과 U-20 월드컵에서 두 경기 연속 만났다. 2017년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상대가 포르투갈이었다. 당시 대표팀은 2승 1패, 조 2위로 16강에 올랐지만 1-3으로 제 8강 진출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대회 첫 경기에서 마주한 포르투갈에 태극전사들은 설욕을 다짐하고 선전을 펼쳤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벽은 높았다.

한국은 이날까지 포르투갈 20세 이하 대표팀과 총 9차례 맞붙었으나 3무 6패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포르투갈은 과거 루이스 피구, 후이 코스타 등으로 대표되는 ‘골든 제너레이션’의 활약으로 U-20 월드컵의 전신인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1989년에 이어 1991년에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그리고 ‘새로운 황금세대’로 불리는 이번 대표팀은 28년 만의 정상탈환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이날 패배는 아쉽지만, 세계 정상급 팀과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은 큰 수확이다.

특히 조 3위를 하더라도 16강 진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한 골차 패배로 마무리한 것은 다행이다.

/연합뉴스